

뜨거웠던 우리의 야구...호남에 위로를 던지다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는 프로야구

선수·지역민 하나된 장엄한 서사시
전국서 몰려든 팬들 광주 맞집 들고
중소상인들도 모처럼 함박웃음
빼끼빼끼 춤 세계로 퍼져가고
노벨문학상과 함께 자긍심 심어줘

KIA 타이거즈는 광주의 장엄한 서사이며, 호남인의 애끓는 서정이었다. 타이거즈는 '비 내리는 호남선'에서 '빼끼빼끼'로 이어진 율동이며, 5·18민중항쟁으로 대표되는 대동세상의 은유로 꼽힌다. 그래서인지 복숭아 승리를 외친 이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며, 울분과 환호를 기억하는 '타이거즈 팬'이다.

28일 KIA의 12번째 승리는 야구에 웃고 울었던 '호남인의 자랑'으로 또 한번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초기 '깜빡 유니폼'을 구입 선물로 받았던 해태 타이거즈 원년 어린이 회원이 중년을 훌쩍 넘겨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또 한 번 우승을 만끽하게 됐다. 점에 그 의미도 크다.

무등경기장의 추억을 간직한 부모 세대의 손을 잡고 야구장을 찾았던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도화지에 감각적인 응원 문구를 적거나 휴대전화에 선수 이름을 띄우며 타이거즈의 승리를 목놓아 외쳤다.

암울한 정치 상황 탓에 출범 초기 극심한 지역감정에 휘말렸던 무등경기장에서는 '(이)만수 바보'라는 합성이 유행했지만 40여년이 흐른 올해 한국시리즈에서는 삼성라이온즈를 응원하는 대구 팬도 챔피언스필드 스탠드에서 마음껏 응원전을 펼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 KIA 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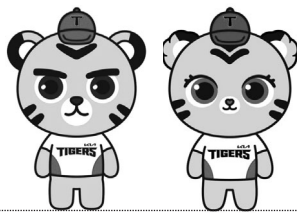
쳤다. 시즌 초반부터 1위를 달렸던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퇴근 후 야구장을 찾은 직장인들은 "(김)도 영아 니 맘시 살아야라며 '두 번째 바람의 아들'의 플레이를 만끽했다. 젊은 여성들은 빼어난 패션 감각을 선보이며 '타이거즈 여신'에 등극했고, 전국에서 몰려든 청년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광주 곳곳의 맛집을 도는 '프로야구 뒷풀이 문화'를 만들어냈다. 당달야 중소 상인들도 함박웃음을 지었다. 챔피언스필드 인근

의 상가와 숙박시설이 몰려있는 상무지구 등지에서 전국 각 팀의 유니폼을 입은 원정팀 팬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게 올해 광주의 프로야구 문화였다. 정규시즌 시작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당국이 대대적인 압포 단속에 나서서 등 전국적인 인기 물의를 한 점도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라는 이름도 당달야 힘을 얻기에 충분했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타이거즈의 잇단 승리는 시민의 가슴에 자긍심을 심어줬다.

과거 5회말이 끝난 뒤 어김없이 등장해 흥을 돋우던 '해태야점'은 사라졌지만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은 원정팀이 삼진 아웃을 당하면 '빼끼빼끼' 춤을 췄고, 관련 영상은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프로야구 문화와 KIA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등공신'이 됐다.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고창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솔선수범했으며, 신인들은 당찬 플레이를 펼쳤다. 혼신의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의 플레이는 지역민에게 스포츠 그 이상의 '위로'를 안겨줬다. 폭염과 의료대란,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지역민

의 얼굴에도 꽃이 피었고, '선수 사랑'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국시리즈에서 맹활약한 김선빈의 단골인 화순군 능주면 한 식당 사장은 타이거즈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추가발을 내주었고, 감독과 코치가 방문하면 생고기를 추가로 썰어주는 식당들도 많았다. 2024년을 가슴 뜨겁게 만들었던 타이거즈의 승리는 이제 모두의 승리로 기록하자. 지역민은 물론 KIA타이거즈 팬들이 올해 프로야구가 안겨준 행복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또 한번의 승리를 기원하며 포효해볼 기대해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일은 없다...팽팽한 흐름만큼 모두가 혼신의 응원

KS 5차전 응원현장 속으로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 발길
경기장 안팎에서 우승 찬가
야구가 좋아 왔다는 한화팬도 응원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이 열린 28일 광주는 하루 종일 KIA타이거즈 우승을 위한 응원 열기로 들끓었다.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염원하는 팬들은 이날 오전부터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광주도심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국시리즈 5차전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장 인근에는 우승을 직

관하려는 KIA 팬들의 실령으로 가득했다. 붉은 유니폼과 푸른 자켓 등 팀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은 팬들은 서둘러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돛자리를 깔았고 굿즈 판매코너와 유니폼 마킹을 하기 위한 줄도 길게 이어졌다. 연차를 쓰고 사촌형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이제현(27)씨는 경기 3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취소표를 어렵게 잡아 경기를 보러 왔다"면서 "제일 좋아하는 김선빈 선수가 늘 그랬듯 오늘도 멋진 활약으로 우승을 견인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홈런볼 과자를 손에 들고 경기장을 찾은 순천대생 김모(30)씨는 과감히 수업을 거르고 경기장을 찾았다. 김씨는 "한국시리즈 4차전 경기 때 홈런볼을 손에 들고 있었더니 김태균이 만루 홈런을 쳤다"며 "이번에도 홈런볼을 먹으며 열심히 응원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이종범 선수 은퇴 기념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은 윤유은(여·29)씨는 "올해 타이거즈 선수들이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싶다"며 "오늘 밤 그 결과를 얻는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한다"고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염원했다. 경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으로 몰려 응원전을 펼쳤다. 돛자리와 캠핑의자 등을 챙겨온 팬부터 각종 음식을 챙겨와 응원전에 나섰다. 음식을 챙기지 못한 지역민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배달 오��바 이가 줄을 잇기도 했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나온 가족단위와 연인끼리 응원에 나선 팬들이 많았다. 4·6세 아들과 함께 KIA응원에 나선

조효은(여·35, 월곡동)씨는 "사실 야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나왔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열기가 엄청나다. 이런 매력 때문에 다들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야구가 좋아아마나(?) 이기길 바라는 팬도 응원에 나섰다. 한화 문동주 선수의 유니폼을 입은 양태영(17·송정동)군은 "한화가 한국시리즈 진출을 못하고, 다른 팀들 하는 거 보러오니 화가 난다"고 농담하면서도 "올해 KIA가 유난히 잘해서 다른 팀 팬으로서 부럽고, 두 팀 모두 응원한다"고 말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 곳곳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뒤에서 안보이니 앉아 달라"며 고함을 치거나, 일어서 사람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흥분이고

조되자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고 띄어앉아 달라. 난간에 기대지 말아 달라"는 안내방송도 나왔다.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기 위해 온 팬들의 응원도 만만치 않았다. 1997년부터 삼성 팬이었다는 이상엽(35)씨는 사회인 야구 동료인 홍성민(28)씨와 광주를 찾았다. 광주 방문은 처음이라는 이씨는 "라이언스 파크는 주차가 2000대밖에 되지 않아 불편했는데 챔피언스필드는 주차장이 넉넉해서 첫인상이 좋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4차전 KIA 김태균 선수의 만루홈런의 충격으로 이날 5차전 경기 관람 여부를 전날까지 고민했다는 이들은 "그래도 (5차전 선발 투수인) 양현종 선수가 가끔씩 삼성에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 한번 더 삼성을 믿어보려 한다"고 웃음을 지었다. 대구 등구에서 엄마 손을 잡고 온 태해은(7)군과 태세은(5)양은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싸인을 하기 위해 펜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 해은은 "바깥구 선수와 박병호 선수를 좋아하는데 오늘 꼭 싸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장혜원 기자 hey1@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자본 감소 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0월 28일 임시사원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420,000,000원을 금 39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총액 42,000주 중 3,000주를 본 회사가 회입하는 사원들로부터 1과당 237.205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10월 29일
유한회사 사무원경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140-53
대표이사 김 현 아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문명(48020-1XXXXXX)
• 최후주조: 광주 북구 북문대로201번길 30, 105동 1004호 (동림동, 우미아파트)
• 피상속인 양 문명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판결을 광주시법원 2024년 단989호로 신청하여 2024년 10월 23일 심판 인용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산을 및 상속자는 위 결정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재권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0월 29일
• 상속인: 1. 이우순(530606-2XXXXXX) 광주 북구 북문대로201번길 30, 105동 1004호 (동림동, 우미아파트)
2. 문소영(821020-2XXXXXX) 광주 북구 북문대로201번길 30, 101동 1004호 (동림동, 우미아파트)
3. 문소연(880725-2XXXXXX) 광주 북구 북문대로201번길 30, 105동 1004호 (동림동, 우미아파트)
• 신고기간: 2024. 10. 29. ~ 2025. 1. 8.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2. 문소영의 주소.

先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 통 206-1920 • 문 266-1990 • 북광주 525-3761
- 신 신 222-8771 • 영 신 571-2558 • 오 지 266-7601
- 흥 흥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 남 남 673-8836 • 동 동 222-0054 • 동 부 225-6001
- 흥 흥 222-9054 • 흥 흥 222-8171

남구

- 남 남 673-8836 • 북 북 651-1833 • 흥 흥 673-8836
- 흥 흥 673-8836 • 흥 흥 673-8836

서구

- 흥 흥 382-5788 • 흥 흥 372-2352 • 서광주 309-1625
- 흥 흥 376-7153 • 흥 흥 376-6511 • 흥 흥 603-0311
- 흥 흥 386-1625

광진구

- 흥 흥 955-1897 • 흥 흥 950-1920 • 흥 흥 973-2900
- 흥 흥 955-0451 • 흥 흥 신 944-0444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사업요청
• 발사업명: 신안지도3호 태양광발전사업
• 발전소위치: 전남남도 신안군 지도읍광명리 1617-2번지외11필지 (총 9필지) (행정리 1617-4, 1617-6, 1618, 1618-2, 1618-4, 1619, 1619-2, 1619-4, 1620)
• 발전소면적: 203,686㎡
• 공고기간: 2024.10.23.~2024.10.31. (9일)

2. 발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28,800k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01.01.~2048.12.31. (20년간)

3. 발사업 허가 신청자
• (유)비록신안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연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10.23.~2024.10.31. (9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3440-7841 팩스: 02-6281-9001
E-Mail: 218001@dasco.kr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지원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청사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나, 이통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1. 발사업요청
• 발사업명: 신안지도3호 태양광발전사업
• 발전소위치: 전남남도 신안군 지도읍광명리 1617-2번지외11필지 (총 12필지) (행정리 1614-2, 1614-3, 1614-4, 1616, 1616-2, 1616-4, 1616-6, 1616-8, 1616-10, 1617, 1617-2/사당리 1740-25)
• 발전소면적: 145,250㎡
• 공고기간: 2024.10.23.~2024.10.31. (9일)

2. 발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21,262.5k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01.01.~2048.12.31. (20년간)

3. 발사업 허가 신청자
• (유)비록신안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연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10.23.~2024.10.31. (9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3440-7841 팩스: 02-6281-9001
E-Mail: 218001@dasco.kr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지원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청사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나, 이통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